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삶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5년 9월 21일 오후 1시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유의 주재 / 찬송가 32(신) 48(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 찬송가 369(신) 487(구)

기도 / 한광기 장로

성경 봉독 / 여호수아 24장 31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여호와를 섬겼더라? / 박화신 목사

찬송 /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 찬송가 413(신) 470(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겉으로만 드리는 믿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는 외형적 경건만으로는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2. 믿음은 삶 속에서 살아야 하며 우리의 인격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안일함과 개인적 경험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일상 속에서 행동과 선택으로 보여지고, 모델링되어야 지속됩니다. 단순한 예배 참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 살아 있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줍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정직, 사랑, 용기, 선택의 기준이 주변을 자연스럽게 도전하고 감화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 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난 주일 설교 / 헛된 배움이 되지 않도록 / 디모데후서 3장 1-17절

첫째,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배워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새로운 상황 앞에서는 쉽게 혼들립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준비된 제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눅 6:40)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배우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추고, 결국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십니다.

바울은 말세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교훈하시지만, 그중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시 119:102)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늘 새로운 진리를 열어 주며,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며, 의로 교육합니다(16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셋째, 배움에는 책임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7절)을 경고합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17절). 배움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들리지 않고 서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삶 속에서 살아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샘소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는 표어로 남은 귀한 시간들을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글로새서 공부를 통해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5. ‘내 인생의 찬송’을 하나 정하시기 바랍니다.
6. 오늘 EM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친교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넘치는 복이 충만하길 축복드립니다.
7. 이번 주 기도제목
신정호(미얀마), 강승우(파라과이) 선교사님 위해
금요 성경공부(글로새서)에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교우들의 건강과 기도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9월 예배위원

안내	박래석	최명희		
기도	조창(7)	박승화(14)	한광기(21)	최명희(28)
교회모임안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읽기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유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공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약속하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이후 세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1세대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적 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영원한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말한다고 해서 가족을 비롯한 남들이 다 듣고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말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것이 비참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